

# 벽골제 수문 추정지에 대규모 도수로 확인

시굴조사 결과, 내부 용수로 외부 경작지로 공급... 제방과 1.3km 떨어진 지점서 확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천선행)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제 벽골제 수문 추정지(수여거) 시굴조사 결과 벽골제 내부의 용수를 외부 경작지로 공급하는 대규모 도수로가 확인되었다.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는 삼국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대의 저수지로, 그동안 7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제방과 수문의 규모와 형태, 축조방식과 우리나라 고대 토목기술의 양상과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김제시는 제 1수문 수여거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제시 신덕동과 장화동 일대 '무네미'로 불리는 수문 추정지(수여거) 시굴조사를 추진했다.

시굴조사 결과 제내(堤內)지역(저수지의 안쪽)에서 대형의 판석으로 바다시설을 만든 정교한 구조의 대규모 도수로(漕水路)와 도수로 보강시설, 호안석축(護岸石築), 도수로 주변의 도로유구와 각종 생활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제외(堤外)지역(관개지역)에서 자연지형을 이용한 대규모 방수로의 존재도 파악할 수 있었다.

도수로는 현재의 지표에 1.1~1.4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동서 길이 33m, 남북

너비 6.7 ~ 9m, 도수로 남쪽과 북쪽 보강시설의 너비는 각각 7.4m내외이다. 도수로와 보강시설을 포함한 전체 너비는 최대 24m에 이른다.

도수로의 바닥은 0.9~1.5m 크기의 대형 판석을 깔았고, 대형 판석 사이는 작은 판석이나 할석을 다듬어 빈틈없이 메꾸었다. 또한 도수로의 남쪽 보강시설 끝에는 호안석축시설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도수로는 시굴조사 범위 바깥인 동쪽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재 확인된 규모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수로는 출토유물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창 '제13회 녹두대상'에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

올해 '13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23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3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을 선정했다.

신순철씨는 1998년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주관을 시작으로 2000년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기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는 '무장기포의 의의와 기념사업의 방향' 연구를 통해 무장기포의 의의를 재해석하는 연구 성과를 이뤘다.

또 전봉준 생가터를 확정하고 '전봉준 고창 태생설'을 다시 입증하는 등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특성을 정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직소폭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되다

문화재위원의 거쳐 명승 116호 지정  
변산팔경 중 하나로 계곡경관 형성

부안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부안 직소폭포 일원(扶安 直沼瀑布 一圓)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6호로 지정하고 최근 관보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부안 직소폭포 일원은 변산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웅장한 폭포와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의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다.

경관의 중심을 이루는 직소폭포는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변산팔경(邊山八景) 중 하나이며 폭포 아래의 실상용추(實相龍秋)라는 소(沼)를 시작으로 분옥담(噴玉潭), 선녀탕(仙女湯) 등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계곡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 높이 30m의 폭포 및 그 주변이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침식지형으로 구성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며 보존 가치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특히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와 송병선(宋秉鎭, 1836~1905)의 변산기(邊山記), 퇴계 이황(1051~1570) 선생이 부안 실상사와 직연폭포(현 직소폭포), 마천대를 제목으로 퇴계선생문집 별집



부안 직소폭포 전경.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직소폭포 일원을 즐겼던 기록들이 상당수 전해 내려오며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秋)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직소폭포는 부안군을 찾는 관

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서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에 있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국내 10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이라며 "부안군민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순창군, 6월부터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오는 6월 말부터는 군민 대상으로 뮤지컬과 성악 등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 한국문화예술포럼연합회가 주관한 '문화예술포럼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방식형태로 추진하려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점이 완화됨에 따라 군도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비치며 6월말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될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뮤지컬과 성악으로, 두 분야가 특화된 예체능 분야다 보니 지역내 강사를 구할 수 없어 군민들은 대도

시로 나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적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엔 군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군민들은 무료로 배울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뮤지컬 교육은 실제 뮤지컬 무대에 큰 활약을 보였던 조순창 배우가 직접 강사진으로 참여해 대도시 못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성악 교육도 순창으로 귀촌한 박희진 소프라노가 직접 교육을 지휘하며 성악가를 꿈꾸던 청소년들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은 매주 2회씩 연말까지 30회 가량 진행되며, 교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반려동물용품·푸드전문가' 교육생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취업취약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반려동물용품 및 푸드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직업교육훈련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용품,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다양해진 소비자 욕구에 맞춘 핸드메이드 캔셀 주문제작 및 커스텀 제작 등 차별화된 여성창업에 중점을 뒀다.

교육일정은 오는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80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다음달 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반려동물 용품·의상·가구·푸드 제작 이론 및 실습 ▲사회적경제의 이해 ▲SNS마케팅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용품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욕구에 맞춰 아이템 선정과 전문기술, 실습교육으로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용품 및 푸드 전문가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지원팀(254-3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에 센터장은 "이번 창업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며 "교육 참여자들이 모두 관련분야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여성가족부, 신한금융그룹과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 협약 체결로 교육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월 3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57회 법의 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법률구조를 통해 도민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지역격차의 해소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도민화합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도민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 최낙준

부회장 김학수

부회장 이연주

총무상임이사 김영호	이사 이현규	이사 박지원
재무상임이사 이민호	이사 국윤호	이사 박일지
공보상임이사 박형운	이사 강성명	이사 하현환
인권상임이사 김현승	이사 남준희	이사 육현창
교육상임이사 우아름	이사 홍요셉	이사 김용빈
법제상임이사 유주환	이사 이희열	이사 최민종
여성상임이사 박정교	이사 김진미	이사 박병진
군산상임이사 최선규	이사 박민수	이사 홍호성
정읍상임이사 유택	이사 이삼일	이사 최창용
익산상임이사 양승일	이사 이보향	감사 김수태
	이사 국순화	감사 최성태